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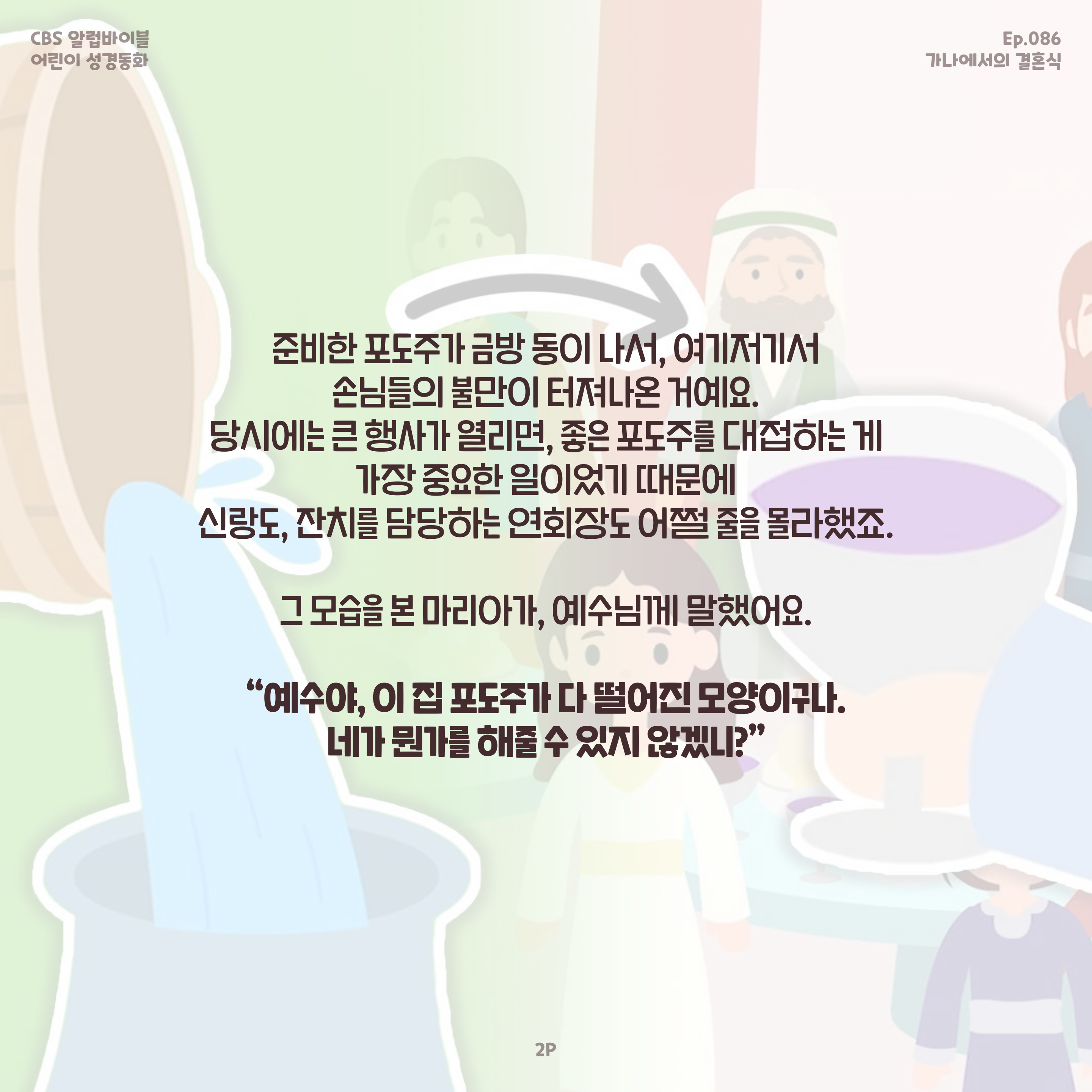
가나에서의 결혼식

(요한복음 2:1~25)

하루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고
큰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술잔이 비었소!
포도주를 갖다 달라 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여기 서비스가 엉망이구만!”



준비한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서, 여기저기서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큰 행사가 열리면,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랑도, 잔치를 담당하는 연회장도 어쩔 줄을 몰라했죠.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야, 이 집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네가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머니,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 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 번 손을
씻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항아리들은 손님들이
손 씻을 물을 담아 두는 항아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이 텅 비어 있었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열심히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병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주었어요.

“이게 뭐냐? 포도주를 구해 온 것이냐?”

연회장이 허겁지겁 물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병 속의 물은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죠!

**“카~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는 처음 마셔본다.
이런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어서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해 드려라~!”**

잔치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헤헤.. 아주 희한한 집안이구만!
보통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오는 법인데.
여기는 이런 최고급 포도주를! 아끼고 아껴놨다
이제 내놓으니 말이오! 헤헤헤!!”**

신랑도, 연회장도, 다시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대신 물을 떠다 준 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요.
이렇게 가나에서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답니다!

어느덧 유월절이 가까워 왔어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북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으셨죠.

그런데, 성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자, 제사에 쓸 소와 양 팝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싸게 드리니까 구경하고 가세요오~!”

“이쪽은 비둘깁니다! 골라 골라~
두 마리 사시면 한 마리 더 드립니다~ 오홍홍홍”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에 걸터앉아서
잔돈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여기가 대체 성전이야 도떼기시장이야?”**

**“어휴 똥 냄새!
하나님을 위한 공간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눈앞의 광경을 본 제자들이 기가 차서
바라만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채찍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보니 다름아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의 돈을 흘트려 버리셨어요.
그 다음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죠.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그러자 당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이럴 자격이라도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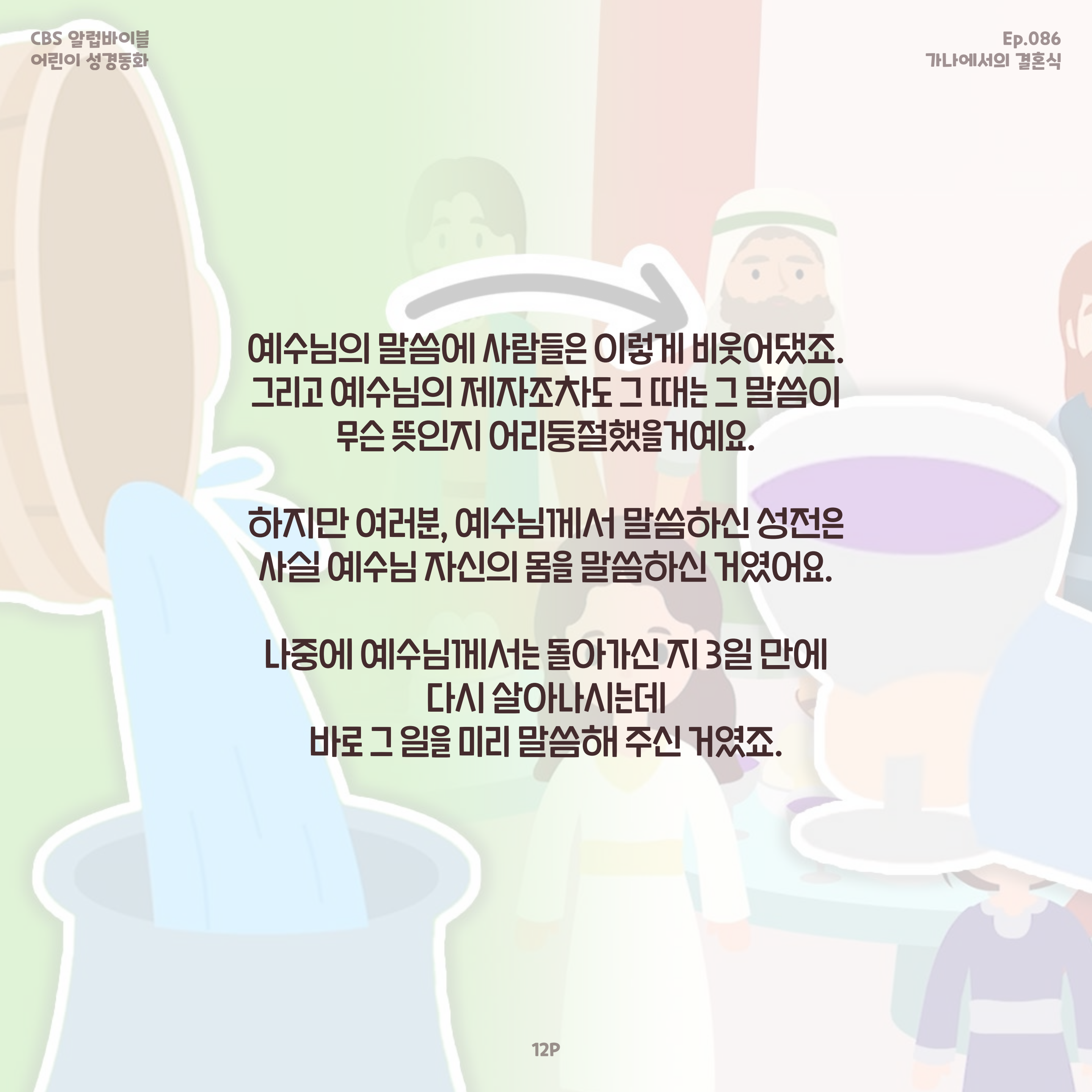
**“그렇소! 당신이 우릴 쫓아낼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을 증명해 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거라. 그리하면
내가 삼 일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하하하! 뭐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닌 모양이구만!
이 거대한 성전을 삼 일 만에 세운다고?
내 비둘기들이 웃을 얘기군! 하하하!”**

**“이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유대인들이
무려 46년을 고생고생 했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만에!
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원!”**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어댔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을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사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바로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였죠.**